

“군공항 이전, 주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원책부터 마련돼야”

김영록 전남지사 기존 원칙 재강조

4자협의체선 군 공항만 다뤄야

광주시 민간공항 이전 약속 지켜라

광주·전남 통합은 기반 조성부터

김영록 전남지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의 2018년 협약 이행과 이전 대상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등의 4자 협의체가 광주시의 2021년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 변화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가 다시 한 번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4자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 당시 논의 주제인 군 공항 이전 문제만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민간공항은 당초 합의한대로 올해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대응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의 경우 광주시가 이전지역에 대한 주민수용성에 무게를 둔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 정부에 이를 제안하고 특별법 제정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전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경우 이는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민 종합지원책은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4자 협의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다. 다만 김 지사는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은 차근차근 진행하되 불필요하게 이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민 여론을 감안해 지난 2018년 광주시가 전남도, 무안군과 약속한 민간공항 이전을 사실상 파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국토부, 국방부 측에 4자 협의체의 재가동을 위해서는 “협의체 내에서 군공항 이전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부, 국방부 등도 4자 협의체 내에서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4자 협의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초 약속대로 협의체 내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에만 집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올해 조강력 레이저센터 유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방사광가속기와 함께 미래 차세대 정정 에너지원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할 시설로 초대형 연구시설이 없는 호남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외에도 2022년까지 의료·의약·치유가 연계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울주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포,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등도 약속했다.

또 광주·전남 통합의 경우 “초광역 협력사업이나 경제 협력사업을 발굴해 통합기반 여건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정사 소재지 문제로 논의의 장에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시·도청이 통합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18 탄흔 방사선 조사...옛 전남도청 출입통제 10일 오전 5·18민주평화기념관 앞에 ‘옛 전남도청 탄흔조사로 인해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1일부터 18일까지 도청 본관 등에 대한 방사선(감마선) 조사를 하고 이 기간 일반인 접근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민 절반 코로나 탓 ‘전염병 불안’ 의료서비스 불만족 1위 ‘긴 대기 시간’

전남도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지난해 사회조사 결과 전남도민의 47.3%가 코로나19에 따른 신종 전염병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최근 도민의 생활상과 정책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의료기관 수는 2826개소로 2018년보다 22개소(0.8%) 증가해 주 수요자인 고령자의 이용 횟수는 증가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서비스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 19.5%, ‘치료 결과 미흡’ 15.3%, ‘전문의 의료인력 부족’ 12.4% 등 순을 보였다. 초고령화로 증가한 의료수요 대응과 필수 인프라 확충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도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소비 부문에서 도민이 가장 부담을 갖

은 소비항목은 식품품비(34.5%)로 전년 대비 4.9%p 증가했으며, 시 지역은 주거비, 군 지역은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았다.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경우 ‘보육비 지원 확대’가 27.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1.9%,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17.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부문은 이상기후로 태풍 발생이 빈번한 8월부터 10월에 전체 강수량의 56.7%가 집중됨에 따라 광양·여수·구례 등 비가 많이 온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지역민의 40.5%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종 전염병에 대해 불안하다는 인식이 47.3%로 2018년 대비 33.6%p나 증가했다.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6.5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설 이전 90% 지급”...정세균 총리, 3차 재난지원금 속도전 주문

“자영업자 눈물 어떻게 닦나” 울며

“변이 바이러스 유입 철저 대비를”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부터 시작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 속도전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설 명절 이전에 90%를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자영업자의 고충을 언급하면서 복받치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이 제기한 방역지침 형평성 문제를 묻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떨군 정 총리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발언 중 눈물을 훔고 있다. /연합뉴스

닦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어 “충분히 이해되고 역사사지를 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이 발등에 떨어진 과제”라면서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1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שה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